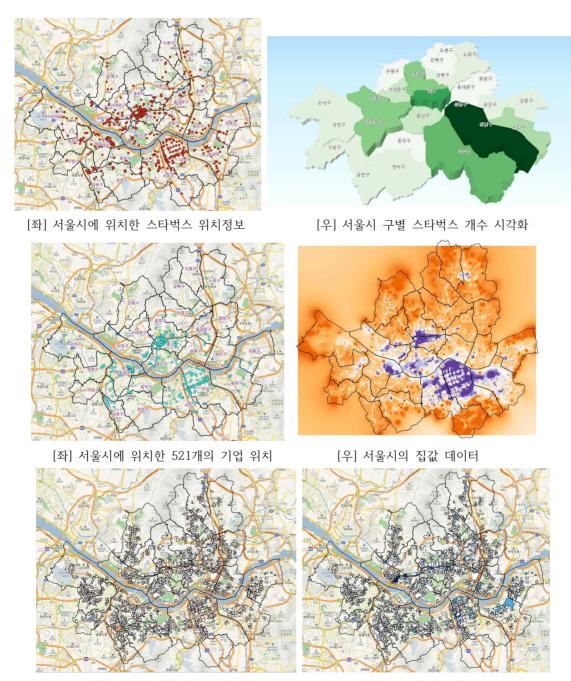
# 코로나 19로 인한 스타벅스 폐점 대상 매장 선정

20192784 윤경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스타벅스 입점 전략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직장인구가 많고, 고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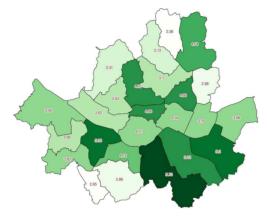
[좌] 서울시 직장인구 수 분포

[우] 2019년 유동인구

폐점 대상 매장 분석에 앞서 코로나 시대의 환경을 반영하여 유동인구와 교통량의 변화, 주차공간의 유무를 기준으로 잡고, 스타벅스의 업종을 반영하여 카페/제과점의 매출과 평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 2019년 서울시 구별 카페/제과 매출비율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9년 업종별 추정매출 데이터로 서울시 전체의 카페/제과점 매출액 대비 구별 점포당 매출액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카페/제과 총 매출액 대비 구별 카페/제과 매출 비

# ✔ 서울시 구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유동인구 변화율

SKT 빅데이터허브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로 구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유동인구의 변화율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강동구와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유동인구가 감소했으며, 중구와 종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 높은 유동인구 수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시 유동인구 변화율

## ✔ 서울시 구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교통량 변화율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통량 데이터로 구별 19년도 대비 20년도의 교통량 변화율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를 제외한

구들은 모두 교통량이 감소했으며, 종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 높은 교통량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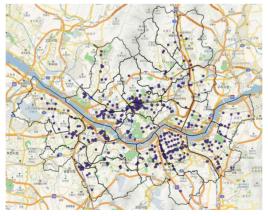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시 교통량 변화율

유동인구 데이터는 강동구와 도봉구가, 교통량 데이터는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변화율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보아 코로나시대 이후 사람들이 서울의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9년 카페/제과점의 외곽 지역 매출비율보다 2020년 외곽 지역의 매출 비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평점과 주차공간 여부에 따른 1차 폐점 대상 매장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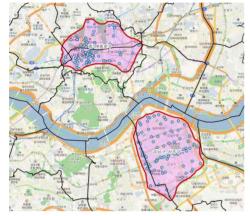
네이버 지도의 각 매장 평점과 주차공간 여부로 위치에 상관없이 1차 폐점 대상 매장을 결정했습니다. 평점은 매장에 대한 고객들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되며, 해당 매장을 아직이용하지 않은 잠재적 고객의 방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장 내부에 머무는 고객의 수가 줄었으며, 현시점과 같이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매장 홀 이용이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주차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평점이 제1사분위수 이하면서 주차공간이 없는 매장을 폐점 대상 매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폐점 대상 매장은 47개이며 서울 전체 스타벅스 매장의 약 9.5%에 해당합니다.



별점과 주차공간을 기준으로 폐점 대상 매장 선정

# ✔ 서울시 스타벅스 밀집지역 선정

서울시의 스타벅스 분포도를 보았을 때, 중구와 종로구, 강남구와 서초구에 매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범위를 수치화해본 결과, 중구와 종로구에는 서울의 2.2%에 해당하는 면적에 서울에 위치한 스타벅스의 15.4%에 달하는 스타벅스 매장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서울의 3.1%에 해당하는 면적에 서울에 위치한 스타벅스의 17%에 달하는 스타벅스 매장 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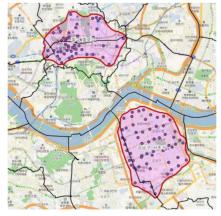
(좌)	스타벅스	밀집지역과	매장	수
(H)		크 ㅂ^ ) ㄱ쒸	-11 0	$\neg$

지역명	면적(m²)	면적비	매장수	매장 비율
중구_ 종로구	13430698.8	2.2%	76개	15.4%
강남구_ 서초구	19000560.7	3.1%	84개	17%

(우) 스타벅스 밀집 지역과 매장 수 비율 계산 표

## ✔ 밀집지역 내의 매장 간 간격에 따른 2차 폐점 대상 매장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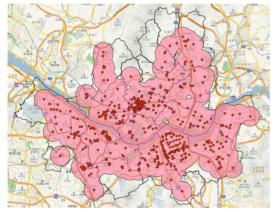
코로나 사태 이후 최소한의 접촉으로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온라인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자차를 이용하여 접촉을 피하면서 기존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2차 폐점 대상 매장 선정은 이와 같은 유동인구 감소 현상을 반영하여 중구와 종로구에 위치한 밀집 지역과 강남구과 서초구에 위치한 밀집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이 200m 내에 2개 이상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선정했습니다. 200m는 카카오맵 도보거리 계산 기준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기에 200m 거리 내에 매장이 두 개 이상 있지 않아도 스타벅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거리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m 이내에 2개 이상 위치하지 않도록 매장 수를 조정하면 중구\_종로구 밀집 지역에서는 27개, 강남\_서초구 밀집 지역에서는 20개로 서울 전체 스타벅스 매장의 약 5.5%와 약 4%에 해당하는 매장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2차 폐점 대상 매장 제거 후 밀집지역 내의 매점 분포

#### ✔ 스타벅스의 배달 도입

스타벅스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배달서비스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타사인 이디야와 커피빈은 배달서비스 도입 이후 배달 주문과 배달 매출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배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타벅스도 배달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역삼이마트점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빠르게 확장될 것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반경 약 1.5km 이내만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하여 모든 매장에 배달서비스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고 1차, 2차 폐점 매장 선정이 배달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매장 중 약 19%의 매장이 폐점되었을 때, 배달을 못 하게 되는 지역의 면적은 폐점 이전에 배달서비스를 도입하였을 경우 가능한 배달 면적의 약 3.13%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장 수 감소량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서울 전 매장에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배달 매출에 있어 1차, 2차에서 선정한 폐점 대상 매장을 폐점 시키는 것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좌) 폐점 전 배달서비스 도입 시 배달 권역

(우) 폐점 후 배달서비스 도입 시 배달 권역



폐점 후 배달서비스 도입 시 배달 불가 지역

### ☑ 참고자료

국민대학교 공간빅데이터분석 수업자료 (KMU, 송규봉, 2020.09.03.-2020.12.10.) / 상권-직장인구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2019.12.24.) / 상권-추정유동인구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2019.12.24.) / 상권-추정매출\_2019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2020.10.16.) /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 - 19년 3월 (SKT 빅데이터허브, 2019.11.11.) /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 - 20년 3월 (SKT 빅데이터허브, 2019.11.11.) /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 - 20년 3월 (SKT 빅데이터허브, 2020.05.08.) / 2019년 지점별 일자별 교통량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2019.04.30.) / 2020년 지점별 일자별 교통량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2020.04.30.) / 네이버 지도 매장 주차공간 여부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도보거리 계산 (카카오맵) / '스벅 배달' 첫날, 온라인에 줄 섰다…동네 카페 긴장 (SBS 8시 뉴스, 2020.11.27.)